

# 라오스에 나누우리 학교 들어서

##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초·중학교 기공식



10월 17일 라오스 나누우리 초등학교 기공식에는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 등이 참석했다.

태고종 중진승려들로 구성된 국제구호단체인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가 라오스에서 역사적인 첫 삽을 들었다. 나누어주는 7월3일 라오스 루앙프라방 교육청에서 건립지원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0월 16일 루앙프라방주 씨양은시를 방문해 건립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10월17일 씨양은 반눈초등학교와 반눈중학교 교사건립 기공식을 봉행했다. 이날 기공식에 한국 측에서는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 상임이사 목원 스님, 재정담당이사 진성 스

님, 감사 범운 스님이 참석했다. 라오스 측에서는 루앙프라방주 통과니 교육장, 문판 반눈초등학교장, 솜삭 반눈중학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나누우리 이사장 월운 스님은 기념사에서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나라의 도움으로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듯이 여러분도 부처님의 인공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큰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통과니 교육장은 환영인사에서

"라오스 어린이들의 교육시설 지원을 위해 멀리 한국에서 이곳까지 찾아준 나누어주를 환영한다"면서 "여러분의 정성으로 라오스 아이들이 국가와 세계를 위한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공식에 앞서 숙소인 방통호텔에서는 라오스지원센터 소장 임명장에서 15년째 거주하며 여행사와 커피농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스님들의 라오스 여행 길잡이 역할을 해온 조홍상씨가 임명됐다. 조동섭 기자

# "문수 스님 뜻 식어선 안돼"

## 내년 1월, 문수 스님 선양사업회 발족

4대강 사업 반대와 서민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촉구하며 소신공양을 했던 문수 스님의 뜻을 기리는 선양사업회가 내년 1월 정식으로 발족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11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문수스님 소신공양 선양사업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준비모임에는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 원정 스님, 화쟁위원회 위원장 도법 스님, 실천승가회 대표 퇴후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현희련 에코붓다 사무국장, 흥지연 한국대학생불자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준비위원회는 내년 1월에 선양사업회를 정식 발족하기로 하고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과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사무처장 정산 스님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한 실무위원회에는 중앙승가대 사무국장 범상 스님, 총무원 사회부 사회국장 묘장 스님, 지보사 주지 원범 스님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2~3명의 활동가들이 합류한다. 간사는 박정규 사회부 팀장이 맡는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문수 스님 시민 강좌, 학술 세미나, 문수 생명상 제정, 문수 스님 소신공양 추모 법회 등을 추진하면서 문수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정식 발족 전 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원정 스님은 "처음보다 문수 스님의 뜻이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모두가 적극 참여해서 선양사업회가 문수 스님의 뜻을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ie2@hanmail.net

# 장애인은 문화재관람료 면제

1·2급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한하던 사찰 관람료 면제 대상이 3급 장애인과 보호자까지 전면 확대된다. 조계종 문화재보호사찰위원회(위원장 정우)는 1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문화재보유사찰 관람료를 기존 1·2급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제하던 데서 3급 장애인과 보호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했다. 이날 문화재사찰위는 해인사, 파계사, 신륵사, 송광사가 신청한 문화재구역 입장료 인상도 승인했다. 4개 사찰의 관람료는 평균 500~1000원 일괄 상향 조정된다. 노덕현 기자

## 100자 뉴스

### 원만사 8m 약사여래대불 점안식

조계종 원만사(주지 범홍)는 11월 30일 제9교구 본사 주지 성문 스님 및 지역사원연합회원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높이 8m의 약사여래대불 점안식 및 봉안식을 봉행했다. 점안 증명법사로는 포항 옥천사 회주 범조 스님이 나섰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파계사 주지배 제2회 풋살대회

파계사 주지배 제2회 풋살대회가 12월 4일 대구 안심 풋살장에서 열렸다. 대구지방경찰청 경승실장 범공 스님(파계사 주지)이 지역사회의 화합과 불교포교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대회에는 불교계 풋살 동호회 범원FC(단장 선광, 안일사 주지)를 비롯해 12개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불교진흥원 캄보디아 어린이 위한 성금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캄보디아 빈곤 초등학생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성금 500만 원을 로터스 월드에 전달했다. 로터스 월드는 불교진흥원이 전달한 성금을 통해 위생교육이 전문한 캄보디아 시애펀 주에서 기초 손 씻기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월 1일 밝혔다. 박기범 기자

### 연화원 장애인 비장애인 화합의 마당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위해 준비된 '2010 수화 사랑 음악회'가 12월 12일 잠실 교동회관 1층 강당에서 열린다. 음악회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과 지역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자비의 쌀 전달식도 마련된다. 박기범 기자

### 서울 수안사 '금강경' 설법 법회

서울 수안사(주지 세민)는 11월 30일 도문 스님(정수 죽림정사 조실, 조계종 원로의원)을 초청해 <금강경> 설법 법회를 봉행했다. 49세 영가천도법회 중 3재인 이날, 300여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법회에서, 도문 스님은 <금강경> 제13 여부수지분, 제14 이상적멸분, 제15 지경공덕분, 제16 능성엄정분을 강설했다. 조동섭 기자

### 본지 이상언 기자 재가연대 기자상

참여불교재가연대(상임대표 김동진)는 본지 이상언 기자와 범보신문 권오영 기자를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재가연대는 1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재가불자상'과 '올해의 참여 불교 기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의 재가불자상은 에코붓다의 현희련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한편, 본지 박재완 사진부 차장은 12월 6일 '불교 언론인의 밤'에서 한국불교기자협회가 수여하는 '선원빈 기자상' 사진 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박기범 기자

### 영등포복지관 개관 3주년 기념식

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지거)이 12월 1일, 개관 3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기념식에서는 경과보고를 통해 3년 동안의 발자취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홍보대사인 광경택 영화감독과 운영위원인 이근주 한빛T&I 대표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박기범 기자

# "비구니 승가에 학연 없어야"

## 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제주지역 간담회서 강조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11월 25일 제주 보덕사에서 제주지역 간담회를 열고 비구니 승가의 위상 확립과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명성 스님을 비롯해 비구니 총회의원 계환 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임원 스님과 제주지역 회장 혜전 스님 등 지역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비구니회와 제주지회 간의 소통과 비구니회의 위상 확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본사와 지회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비구니회지' 등을 통해 지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명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전국의 7000여 비구니스님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요즘 어느 강원 출신이라는 말이 오가는데 우리 모두가 전국비구니회원임을 명심하고 비구니 발전을 위해 원력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구좌읍 김녕리 금용사 주지 현도 스님은 비구니회 발전을 위해 2만3100㎡(7000평)에 이르는 금용사 부지를 전국비구니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오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 불자가수 김흥국, 선배가수에 후원금 전달

MBC 라디오 '김흥국·김경식의 두시만세'를 진행하는 불자 연예인 김흥국(52)씨가 12월 11일 제11회 김흥국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한다. 이날 김흥국장학재단은 추구에 재능이 많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생 8명, 해병대전우회 자제들 중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 2명과 원로불자가수 명국환·금사향 선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명국환 선생은 '아리조나 카우보이'로, 금사향 선생은 '홍콩 아가씨'로 유명한 불자가수다.

매해 1회 소년 소녀 가장 및 무의탁 청소년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어린 추구에 선 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온 김흥국장학재단은 올해 처음 원로불자가수 공로상을 신설했다. 한편 장학금 전달식은 오전 11시 서울 이태원동 종식당 마오에서 열린다. 이나은 기자



## 10일까지 답낸다

### 4대강논의위, 첫 회의

불교 등 종교계가 주도하고 정부, 여야, NGO가 참여하는 4대강논의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12월 10일까지 4대강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사업 국민적 논의위원회'(이하 4대강논의위원회)는 11월 30일과 1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11월 30일 첫 회의에서는 4대강논의위원회 위원장에 도법 스님이 호선됐다. 12월 2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릴레이 토론 등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기로 결정했다. 조동섭 기자

# 가족의 건강지킴이! '휘나핫 반신욕기'

##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사이 대류현상이 일어나 피가 잘순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맑아 함께배출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핫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 않아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핫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 노인정, 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가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다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핫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 슈퍼블랙디스크는 섭씨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반신욕과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가능성을 갖는다. 휘나핫 반신욕기는 기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층스킨분위기를 위하여 원목(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핫 B.C.P 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 02-875-0600  
www.hwinahot.co.kr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김상복 저 | 값 5,000원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민병, 비만치료!

###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 070-7804-5358

계좌 :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 부림출판사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